

「同盟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Dong-maeng-rok*

朴文烈(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4. 「同盟錄」 |
| 2. 朝鮮 初期의 三功臣 | 4.1 「同盟錄」의 形態事項 |
| 2.1 開國功臣 | 4.2 「同盟錄」의 內容 |
| 2.2 定社功臣 | 5. 結 論 |
| 2.3 佐命功臣 | <참고문헌> |
| 3. 朝鮮 初期의 功臣會盟 | |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 초기의 개국·정사·좌명 등 3공신의 회맹록인 「同盟錄」에 관하여 형태서지학 및 원문서지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국공신은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공이 많은 52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勳號이고 정사공신은 芳碩의 난을 평정하고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이 많은 29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이며 좌명공신은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에 공이 많은 53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이다.

(2) 功臣會盟은 왕조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며, 會盟文은 이러한 회맹에서 맹서한 記錄文이다.

(3) 「同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조선초기의 3공신 66인이 함께 회맹하고 盟誓한 내용을 수록한 1책의 목활자본이다.

要語 : 동맹록, 회맹록,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 (parkmoon@cj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Dong-maeng-rok*, which records the pledges of three meritorious retainers, i.e., Gaeguk, Jeongsa and Jwamyeong Gongsins grant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Gaeguk Gongsin is the title granted to 52 people who contributed to found the Joseon Dynasty, Jeongsa Gongsin was granted to 29 people who repressed the rebellion of Bangseok, and helped keep the descendants of the royal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and Jwamyeong Gongsin was granted to 53 people who helped enthrone Taejo as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2) 'Gongsin Hwaemaeng' is the ceremony in which people pledge their allegiance to the Dynasty, and 'Hwaemaeng-mun' is the document that describes the details of their pledge specified in such a ceremony.

(3) 'Dong-maeng-rok' published in one volume with the wooden-types, documents the 'Hwaemaeng' ceremony of 66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eld in November 16th, 1404 (Taejong 4).

Key words : *Dong-maeng-rok*, *Hwaemaeng-rok*, *GaeGuk-Gongsin*,
Jeongsa-Gongsin, *Jwamyeong-Gongsin*.



1. 緒言

功臣¹⁾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인사들을 호칭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는 건국 직후 3차에 걸쳐 開國功臣·靖社功臣·佐命功臣 등을 冊勳하였다. 이들 三功臣의 책훈은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왕자의 난이나 왕위 옹립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책훈되었던 것이다. 開國功臣은 태조 원년(1392)에, 定社功臣은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인 정종 卽位년(1398)에, 그리고 佐命功臣은 태종의 卽位(1400)와 더불어 책훈되었다.

공신의 책훈은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곤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사들을 褒賞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조선 건국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3차에 걸쳐 공신을 책훈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격동기였음을 알 수 있다.

本稿는 조선 초기의 三功臣의 개괄을 바탕으로 태종 4년(1404)에 이들 三功臣들이 회맹하였던 기록인 「同盟錄」에 관하여 분석적으로 고구하고자 한다.

2. 朝鮮 初期의 三功臣

조선 초기에 책훈된 三功臣은 開國功臣·靖社功臣·佐命功臣이다. 이들 三功臣의 책훈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 하에 책훈되었던 것이다.

2.1 開國功臣

개국공신은 태조 李成桂가 開京의 壽昌宮에서 즉위를 하면서 자신을 도와

1) 功臣: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주던 稱號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勳功을 나타내는 名號를 주며 等級을 나누어 褒賞하였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공이 많았던 52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勳號로 이들을 3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표창하고 책훈하였던 것이다.

개국공신의 책훈은 태조 원년(1392) 9월에 실시²⁾되었으나, 책훈에 관한 실무는 태조 원년 8월 20일(기사)에 교지로 개국공신의位次를 정하면서부터 시작³⁾되었다. 당시 태조가 내린 개국공신 책훈에 관한 교서는 “門下左侍中 裴克廉, 右侍中 趙浚, 門下侍郎贊成事 金士衡·鄭道傳, 興安君 李濟, 義安伯 李和, 參贊門下府事 鄭熙啓·李之蘭, 判中樞院事 南閔, 知中樞院事 張思吉, 僉書中樞院事 鄭摠, 中樞院副使 趙仁沃, 中樞院學士 南在, 禮曹典書 趙璞, 大將軍 吳蒙乙·鄭擢 등은 天命의 거취와 인심의 向背를 알아 백성과 社稷의 大義로써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寡躬을 추대하여 大業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礪)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잇기가 어렵도다! 判三司事 尹虎, 工曹典書 李敏道, 大將軍 朴苞, 禮曹典書 趙英珪, 知中樞院事 趙胖, 平壤尹 趙溫, 同知中樞院事 趙琦, 左副承旨 洪吉叟, 成均大司成 劉敬, 判司僕寺事 鄭龍壽, 判軍資監事 張湛 등은 謀議에 참여하여 과공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도다! 都承旨 安景恭, 中樞院副使 金稠, 前漢陽尹 柳爰廷, 前知申事 李稷, 左承旨 李勲, 戶曹典書 吳思忠, 刑曹典書 李舒, 判殿中寺事 趙英茂, 前禮曹判書 李伯由, 判奉常寺事 李敷 와 上將軍 金輅·孫興宗과 司憲中丞 沈孝生, 典醫監 高呂, 校書監 張至和, 開城少尹 咸傳霖 등은 高麗王朝의 정치가 문란할 때 과공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도다! 이상에서 거명한 인사들에게는 차례대로 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그 褒賞의 典禮는 有司에서 거행할지라! 中樞院使 金仁贊은 불행히 죽었으나 일찍이 배극렴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공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도 매우 크도다! 아울러 배극렴의 例에 의거하여 시행할지라!”⁴⁾는 내용이였다.

2) 春秋館 編, 『太祖實錄』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己亥條.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教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3) 春秋館 編, 『太祖實錄』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8月 己巳條. 敕定開國功臣位次曰….

그 후 태조 원년(1392) 9월 16일(갑오)에는 功臣都監에서 개국공신의 포상규정을 上言하자 允許⁵⁾하였으며, 9월 21일(기해)에 비로소 개국공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功臣錄券 등을 내리면서 개국공신 책훈에 관한 업무는 활발히 진행되었던⁶⁾ 것이다.

그리고 태조 원년(1392) 9월 27일(을사)에 上將軍 趙涓, 右承旨 韓尙敬, 判繕工監事 任彥忠, 判軍器監事 黃居正, 大將軍 張思靖·韓忠, 兵曹議郎 閔汝翼 등을 개국공신에 追錄⁷⁾하고 10월 9일(정사)에는 개국공신의 칭호를 하사⁸⁾하였으며, 11월 6일(계미)에는 개국공신에게 敎書를 내렸던 것⁹⁾이다. 또한 태조 2년(1393) 7월 22일(을축)에는 개국공신을 冊錄하도록 교지를 내리고¹⁰⁾ 태조 7년

- 4) 春秋館 編, 「太祖實錄」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己亥條. 門下左侍中裴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郎贊成事金士衡·鄭道傳·興安君李濟·義安伯李和·參贊門下府事鄭熙啓·李之蘭·判中樞院事南閔·知中樞院事張思吉·僉書中樞院事鄭摠·中樞院副使趙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書趙瑛·大將軍吳蒙乙·鄭擢等 識天命之去就·人心之向背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寡躬 共成大業 其功甚大 帶礪難忘 判三司事尹虎·工曹典書李敏道·大將軍朴苞·禮曹典書趙英珪·知中樞院事趙胖·平壤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洪吉叟·成均大司成劉敬·判司僕寺事鄭龍壽·判軍資監事張湛等 參謀與議 推戴寡躬 其功亦大 都承旨安景恭·中樞院副使金綸·前漢陽尹柳爰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勲·戶曹典書吳思忠·刑曹典書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曹判書李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輅·孫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醫監高呂·校書監張至和·開城少尹咸傳霖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寡躬 以至今日 固守不變 其功可賞 張上項人等 次次賜功臣之號 其褒賞之典 有司舉行 中樞院使金仁贊 不幸身沒 嘗於克廉等 決疑定策 推戴寡躬之時 同心相濟 其功甚大 并於克廉例施行.
- 5)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甲午條. 功臣都監上言…上允之.
- 6)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己亥條.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敎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 7)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乙巳條. 敎都評議使司曰 上將軍趙涓·右承旨韓尙敬·判繕工監事任彥忠·判軍器監事黃居正·大將軍張思靖·韓忠·兵曹議郎閔汝翼 開國之初 亦各有功 趙涓依尹虎例 餘依安景恭例 皆賜號開國功臣 舉行褒賞.
- 8)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10月 丁巳條. 賜開國功臣之號 一等曰佐命開國 二等曰協贊開國 三等曰翊戴開國.
- 9)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11月 癸未條. 賜開國功臣等敎書…功臣等享上 其敎工曹典書李敏道書 諫議大夫李文和所製.

(1398) 12월 15일(정사)에는 太宗과 李芳毅·李芳幹 등을 개국공신으로 추가하여 일등공신 趙浚의 예에 따라 포상하면서¹¹⁾ 개국공신의 책훈에 대한 일은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2.2 定社功臣

조선 태조의 創業途上에서 왕위 계승권을 에워싸고 2차에 걸쳐 일어난 왕자들 사이의 骨肉相爭의 비극이 있었던 바, 이를 왕자의 난이라 한다. 태조는 왕비 韓氏 소생으로 芳雨·芳果·芳毅·芳幹·芳遠·芳衍 등 6男을 두었고 繼妃 姜氏의 소생으로 芳蕃과 芳碩의 2남을 두었다. 방원의 난은 이들 중 방원과 방석의 싸움이며, 방간의 난은 방간과 방원의 싸움이었다. 당시는 아직 건국의 초창기여서 병권이 국가에 집중되지 못하고 왕자들도 각기 私兵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된 중대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왕위계승 문제가 落着되었으며 사병을 없애고 모든 군대를 국가의 군대로 통합하게 되었다.

정사공신은 조선 정종 즉위년(1398)에 일어난 이른바 芳碩의 난에 鄭道傳·南閻·沈孝生·張至和·李勲 등을 誅殺하고 芳碩의 난을 평정하여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이 많았던 29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으로 이들을 2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표창하고 책훈하였던 것이다.

定社功臣의 책훈은 정종 즉위년(1398) 9월 17일(기축)에 왕이 李芳遠와 더불어 定社功臣의 등급을 논하고 都承旨 李文和에게 교지를 전하면서부터 시작¹²⁾되었다. 당시 정종이 내린 교지는 “국가가 創業된지 오래지 않아 진실로 근본을

10)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2年 7月 乙丑條. 敎曰…若論其功 宜在旌賞…褒賞之典 有司舉行.

11)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12月 丁巳條. 追錄我殿下及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 開國之功 視一等功臣趙浚例 褒賞.

12)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9月 己丑條. 上與我殿下 論第定社功臣 命都承旨李文和傳旨曰….

바루고 시초를 바로잡아 天命에 따라 안정시켜 國祚를 萬世에 전해야 됨에도, 불행히 奸臣 鄭道傳과 南閻 등이 上王께서 오랜 병환에 계시는 시기를 타서 어린 庶子의 세력을 믿고 난을 일으켜 우리 여러 형제를 해치려 하였도다!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王業을 顛覆하고자 하여 그 禍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義安公 李和, 益安公 李芳毅, 懷安公 李芳幹, 殿下 李芳遠, 上黨侯 李伯卿, 左政丞 趙浚, 右政丞 金士衡, 參贊門下府事 李茂·趙璞, 政堂文學 河崙, 參贊門下 李居易, 參知門下 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宗社를 편안케 하였으니, 그 공로는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 없을 것이도다! 寧安侯 李良祐, 靑原侯 沈淙, 奉寧侯 李福根, 門下侍郎贊成事 李之蘭, 參贊門下 張思吉, 商議門下 趙溫, 判中樞院事 金輅, 前商議中樞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同知中樞院事 李天祐, 商議中樞 張思靖, 同知中樞 張湛, 中樞院副使 張哲, 右副承旨 李叔蕃, 上將軍 辛克禮, 大將軍 閔無咎, 戶曹議郎 閔無疾 등은 성심으로 보좌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로도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 없을 것이도다! 褒賞의 恩典을 받은 관원은 이를 거행할지라!”¹³⁾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교와 관련하여 정종 즉위년(1398) 10월 1일(계묘)에 功臣都監에서 定社功臣의 책훈과 등급별 포상내역을 주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삼가 국왕의 교지를 살펴보건대, 국가가 創業된지 오래지 않아 마땅히 근본을 바루고 시초를 바로잡아 國祚를 萬世에 전해야 될 것인데, 奸臣 鄭道傳과 南閻 등이 上王께서

13)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9月 己丑條.
 …國家創業未久 誠宜端本正始 以凝天命 傳祚萬世 不幸奸臣道傳·閻等 當上王失豫彌留之際 欲挾幼孳爲亂 謀害我諸兄 幾覆我已成之業 禍在不測 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我殿下芳遠·上黨侯李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門下李居易·參知門下趙英茂 奮忠決策 靖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 寧安侯良祐·靑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李之蘭·參贊門下張思吉·商議門下趙溫·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李天祐·商議中樞張思靖·同知中樞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辛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疾等 推誠協贊 靖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 褒賞之典 有司舉行.

오랫동안 병환에 계시던 시기에 어린 庶子의 세력을 믿고 宗親을 해치려고 도모하고 이미 이루어진 王業을 顛覆하고자 하여 그 禍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사옵니다! 이에 義安公 李和, 益安公 李芳毅, 懷安公 李芳幹, 우리 殿下 李芳遠, 上黨侯 李伯卿, 左政丞 趙浚, 右政丞 金思衡, 參贊門下府事 李茂·趙璞, 政堂文學 河崙, 參贊門下府使 李居易, 參知門下府事 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으니, 이는 비록 전하께서 潛邸에서 덕을 양성하여 天命이 人心과 함께 돌아와서 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王統을 계승하게 된 것이나 또한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여 社稷을 안정시킨 功烈에 힘입게 된 것도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사옵니다! 그 공로가 적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잇을 수가 없을 것이니 청하옵건대 定社一等功臣으로 稱下하소서! 寧安侯 李良祐, 靑原侯 沈淙, 奉寧侯 李福根, 門下侍郎 李之蘭, 參贊門下府事 張思吉, 商議門下府事 趙溫, 判中樞院事 金輅, 商議中樞院事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同知中樞院事 李天祐, 商議中樞院事 張思靖, 同知中樞院事 張湛, 中樞院副使 張哲, 右副承旨 李叔蕃, 上將軍 辛克禮, 大將軍 閔無咎, 戶曹議郎 閔無疾 등은 성심으로 協謀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킨 점이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사옵니다! 그 공로도 적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잇을 수가 없을 것이니 청하옵건대 定社二等功臣으로 청하하소서!”¹⁴⁾라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종 즉위년(1398) 11월 18일(경인)에 왕이 정사공신에게 잔

14)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10月 癸卯條. 功臣都監上言 伏審王旨 國家創業未久 宜當端本正始 傳祚萬世 奸臣道傳·閔等 於上王 失豫彌留之際 挾幼孽謀害宗親 幾覆已成之業 禍在不測 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我殿下芳遠·上黨侯李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門下李居易·參知門下趙英茂等 奮忠決策 靖難反正 是雖殿下育德潛邸 天與人歸 以致戡定禍亂 受命繼統 亦賴名世之臣 佐命定社之烈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一等功臣爲稱·寧安侯良祐·靑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鄭成事李之蘭·參贊門下張思吉·商議門下趙溫·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李天祐·商議中樞張思靖·同知中樞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辛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疾等 推誠協謀 靖難反正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二等功臣爲稱….

치를 베풀고 敎書와 錄券을 내림¹⁵⁾으로써 정사공신의 책훈은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2.3 佐命功臣

좌명공신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懷安大君 李芳幹과 朴苞의 亂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에 공이 많았던 53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으로 이들을 4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표창하고 책훈하였던 것이다.

좌명공신의 책훈은 태종 즉위년(1400) 11월 13일(계유)에 의정부에서 李來를 좌명공신으로 삼도록 청하고¹⁶⁾ 태종 원년 정월 15일(을해)에 佐命한 功을 기록하여 4등으로 나누어 下敎¹⁷⁾하면서 시작되었다. 하교의 내용은 “지난날 逆臣 朴苞가 똥할 마음을 품고 몰래 懷安 父子를 끼고 우리 骨肉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대궐로 향하여 凶逆을 자행하여 宗社의 安危가 瞬間에 있었도다! 上黨侯 李佇, 門下左政丞 李居易, 右政丞 河崙, 判三軍府事 李茂, 門下侍郎贊成事 趙英茂, 左軍總制 李叔蕃, 中軍總制 閔無咎, 左軍同知總制 辛克禮, 驪城君 閔無疾 등 9인이 마음을 합하여 義에 따르고 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禍亂을 평정하고 宗社를 편안히 하여 盡忠佐命하였으니 1등으로 稱下할지라! 藝文春秋館學士 李來는 義를 따르고 私를 잊어 變을 듣고서 제일 먼저 告하여 盡忠佐命하였고 義安公 李和와 完山侯 李天祐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禍亂을 구제하고 翊戴佐命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할지라! 昌寧伯 成石璘, 完川君 李淑, 門下贊成事 李之蘭, 開城留後 黃居正, 知三軍府事 尹祗·金英烈, 右軍同知總制 尹坤, 刑曹典書 朴崙, 都承旨 朴錫命, 上將軍 馬天牧, 判殿中寺事 趙希閔, 奉常卿

15)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11月 庚寅條. 宴定社功臣于勤政殿 各賜敎書錄券 極權乃罷.
 16) 春秋館 編, 定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定宗 2年 11月 癸酉條. 議政府請以李來爲佐命功臣.
 17)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元年 1月 乙亥條. 錄佐命功臣爲四等敎曰….

柳沂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翊戴佐命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할지라! 參贊門下府事 趙璞, 三司左使 趙溫, 參贊門下府事 權近, 三司右使 李稷, 參知三軍府事 柳亮, 中軍摠制 趙卿, 左軍摠制 金承霖, 右軍同知摠制 徐益, 前同知摠制 洪恕, 兵曹典書 尹子當, 左承旨 李原, 右承旨 李升商, 漢城尹 金鼎卿, 右副承旨 徐愈, 上將軍 李從茂·李膺·沈龜齡, 大將軍 延嗣宗·韓珪·金字·文彬, 前中軍將軍 尹穆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協贊하고 오래 토록 調護를 부지런히하여 翊戴佐命하였으며 軍資少監 宋居信은 위태로움을 당해 患을 구제하여 翊戴佐命 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할지라!”¹⁸⁾는 것이었다.

그 후 태종 원년 2월 25일(갑인)에 義安大君 李和 등 47인의 좌명공신에게 敎書와 錄券 및 牌를 하사하고¹⁹⁾ 태종 2년 2월 15일(무진)에 御眞과 좌명공신 40명의 影幀을 그리게 함²⁰⁾으로써 좌명공신 책훈은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논급한 朝鮮初期 三功臣의 공적과 등급을 <표 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元年 1月 乙亥條.

往者逆臣朴苞 包莊禍心 陰協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凶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藝文春秋館學士李來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李·完山侯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昌寧伯成石璘·完川君淑·門下贊成事李之蘭·開城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楫·金英烈·右軍同知摠制尹坤·刑曹典書朴崙·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勳力 累曾效忠 翊戴佐命三等稱下…參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霖·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右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珪·金字·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 輸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19)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元年 2月 甲寅條.

宴佐命功臣于北亭 召義安大君和等四十七人 手授敎書·錄券及賜牌.

20)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2年 2月 戊辰條.

命寫御容 佐命功臣四十影子并畫之.

<표 1> 朝鮮初期 三功臣의 功績과 等級

功臣	功績	1等功臣	2等功臣	3等功臣	4等功臣	備考
開國	太祖 元(1392) 朝鮮開國의 功	純忠 奮義 佐命 開國 功臣 裴克廉·趙浚·金士衡·鄭道傳·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南閻·張思吉·鄭摠·趙仁沃·南在·趙璞·吳蒙乙·鄭禮·金仁贊 등 17人	協贊 開國 功臣 尹虎·李敏道·朴苞·趙英珪·趙陟·趙溫·趙琦·洪吉岐·劉敬·鄭龍壽·張湛·黃希碩·趙洞(洞) 등 13人	翊戴 開國 功臣 安景恭·金禰·柳爰廷·李稷·李勳·吳思忠·李舒·趙英茂·李伯由·李敷·金略·孫興宗·沈孝生·高呂·張至和·威傳·韓尙敏·任彥忠·黃居正·張思靖·韓忠·閔汝翼 등 22人	-	金仁贊·黃希碩은 追錄 吳蒙乙은 1398년에 追奪 趙道傳·南閻은 1398년에 追奪되었다 뒤에 復爵 朴苞·李勳은 追奪 52人
定社	定宗 即位(1398) 芳碩·鄭道傳·南閻 除去의 功	李和·李芳毅·李芳幹·李芳遠·李伯脚·李浚·金士衡·李茂·趙璞·河備·李居易·趙英茂 등 12人	李良祐·沈淙(徐)·李福根·李之蘭·張思吉·趙溫·金略·朴苞·鄭禮·李天祐·張思靖·張湛·張哲·李叔蕃·辛克禮·閔無咎·閔無疾 등 17人	-	-	朴苞는 1401년에 追奪 閔無咎·閔無疾은 追奪 29人
佐命	太宗 元(1400)年 芳幹의 亂 平定의 功	李衍·李居易·河崙·李茂·趙英茂·李叔蕃·閔無咎·辛克禮·閔無疾 등 9人	李來·李和·李天祐 등 3人	成石璘·李淑·李之蘭·黃居正·尹砥·金英烈·尹坤·朴冒·朴錫命·馮天牧·趙希閔·柳沂 등 12人	趙璞·趙溫·權近·李稷·柳亮·趙脚·金承雍·徐益·洪恐·尹子當·李升商·李金·李鼎卿·徐愈·李從茂·李膺·沈龜齡·延嗣宗·韓珪·金宇·文彬·尹穆·宋居信(臣) 등 23人	閔無咎·閔無疾은 追奪 宋居信은 追錄 53人

3. 朝鮮 初期의 功臣會盟

공신들의 집단 모임인 功臣會盟은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며, 會盟文은 이러한 회맹에서 맹서한 記錄文이다.

조선초기부터 공신들이 會盟한 횟수는 적지 않았다.

태조 원년(1392) 9월 28일(병오)에 開國功臣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함께 會同하여 王輪洞에서 맹세한 것²¹⁾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의 회맹문은 “門下

左侍中 裴克廉 등은 감히 皇天后土와 松嶽 및 城隍 등 모든 신령께 告 하나이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主上 殿下께서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大命을 받자와 신 등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큰 왕업을 이루었나이다! 이미 함께 일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그 다행함이 이보다 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도 종말은 있기 드물다’고 경계한 바 있나이다! 무릇 일을 같이한 우리들은 각기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며,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고 이익을 다투어 서로 꺼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이간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며, 말과 얼굴빛의 조그만 실수로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말며, 등을 돌려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을 마주해서는 기뻐하지 말며,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 하지 말며, 과실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고 의심이 있으면 물어 보며, 질병이 있으면 서로 扶助하고 환란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 줄 것이나이다!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인 바, 혹 변함이 있으면 神이 반드시 죄를 줄 것이나이다.”²²⁾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에 개국공신의 자손들은 忠孝契를 맺고 王輪洞에서 會盟²³⁾하기도 하였다.

정종 즉위년(1398) 10월 9일(신해)에는 임금이 定社功臣 29인을 거느리고 맹약하였는데, 당시의 맹약문은 “朝鮮國王 臣 曺은 삼가 宗親 義安公 李和, 益安公 李芳毅, 懷安公 李芳幹, 우리 殿下 李芳遠 과 輔臣 인 門下左政丞 趙浚 및 右政丞 金士衡 등을 거느리고 감히 皇天后土와 宗廟社稷과 山川百神의 神靈께 밝게

21)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丙午條.

開國功臣會王世子及諸王子 盟于王輪洞 ….

22)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丙午條.

…其載書曰 門下左侍中裴克廉等 敢明告于皇天后土·松嶽城隍等一切神祇 恭惟我主上 殿下 應天順人 誕膺景命 臣等協力同心 共成大業 既已同功 俱爲一體 幸莫大焉 然靡不有初 鮮克有終 古人所誠 凡我同功之人 各宜事上以誠 交友以信 毋爭貴以相害 毋爭利以相忌 毋以他人間言而有動於念 毋以辭色小失而有疑於心 毋背憎而面悅 毋貌合而心離 有過失則規之 有所疑則質之 有疾病則相扶 有患難則相救 至于我子孫 世守此盟 如或有渝 神必殛之 .

23)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元年 9月 丙午條.

開國功臣子孫弟婿 結爲忠孝契 會盟于王輪洞.

告 하나이다! 우리 祖宗께서 積德한지 100년 만에 우리 上王의 거룩한 덕과 뛰어난 공이 天意와 人心에 순응하셨으니, 이는 우리 형제 2·3명이 실상 보좌하여 문득 나라를 領有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뜻밖에 奸臣 鄭道傳과 南閻 등이 그 충애를 固結시키고자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것을 이롭게 여겨 嫡長을 빼앗아 인륜을 紊亂시켜 謀反하려는 마음을 몰래 품어 우리 형제를 도모하여 번고가 장차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천지와 祖宗의 도움을 힘입어 죄인이 伏罪하게 되었나이다! 외람히 嫡長으로서 삼가 上王의 명령을 받아 임금의 계통을 계승하게 되니, 이를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힘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돌아보건대 宗親과 大小의 臣僚들은 奸黨이 난리를 선동하는 때를 당하여 능히 大義를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하고 즉시 성공하여 宗社가 편안하게 되니, 그 공로는 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들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나이다! 이에 맡은 관원에게 명령하여 적당히 헤아려 褒賞하고 이렇게 좋은 날을 가려 明神께 제사하고 盟約을 하나이다! 나는 同盟한 신하들과 더불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비록 참소와 이간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며 비록 혹시 죄가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이를 赦宥토록 할 것이니, 대대로 자손들은 오늘을 잊지 말지라! 그대 同盟한 신하들은 더욱 그 마음을 다해서 王室을 보좌하여 큰 國祚를 영구히 전해서 나라와 더불어 모두 기쁘게 지낼지라! 혹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서로 面對하여 타이르고 혹 忿恨이 있으면 마땅히 서로 사리로 용서하기도 하여, 각기 그 성심을 다하여 감히 보는 데서는 기뻐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미워하여 서로 위태롭게 하지 말며, 마땅히 과실은 서로 바로잡고 환난은 서로 구원하며, 德業을 서로 권장하여 평탄할 때와 험난한 때를 한결같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할지라! 진실로 이 맹약이 변한다면 神이 반드시 죄를 주어 재앙이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니, 각기 그대의 몸을 공경하여 감히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지라!”²⁴⁾는 것이었다.

24)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 7年 10月 辛亥條.
上率定社功臣二十九人同盟 其載書曰 朝鮮國王臣曺 謹率宗親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我殿下芳遠·輔臣門下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等 敢昭告于皇天

또한 태종 원년(1401) 2월 12일(신축)에는 왕이 馬巖의 壇 아래에서 佐命功臣과 더불어 祭服을 입고 敵血同盟하였는데, 그 동맹문은 “維歲次 建文 3년(1401, 신사) 2월(경인) 12일(신축)에 조선국왕 李芳遠은 삼가 勳臣 義安大君 李和, 上黨君 李佇, 完山君 李天祐, 門下左政丞 李居易, 右政丞 河崙, 判三軍府事 李茂 등을 거느리고 皇天上帝와 宗廟·社稷 및 山川百神의 靈께 감히 밝게 告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周나라 제도에는 盟載의 법이 있었고 漢나라가 興起함에 帶礪의 맹세가 있었으니, 神明 앞에 忠信을 굳게 하자는 것이었나이다 우리 太上王께서 神武하신 덕으로 운수에 응하여 開國하여 無疆한 業을 창건하였으나 불행히도 權奸이 榮寵을 탐하여 어린아이를 끼고서 우리 형제를 해하려 하여 變이 不測한 지경에 있었나이다! 上天이 마음을 달래고 宗親과 勳臣의 협력에 힘입어서 능히 난을 평정하고 嫡子이고 장자인 우리 上王을 協贊하여 명을 받아 大統을 잇게 하니, 天倫이 퍼지고 宗社가 정하여졌던 것이나이다! 뜻밖에 다시금 교활한 자가 간흉한 계획을 품고 반역을 꾸미어 우리 骨肉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해서 禍가 瞬間에 있었으나 또한 宗親과 勳臣이 충성과 힘을 다하여 이내 평정하였나이다! 상왕께서 國本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심이 흔들리기 쉬운 것을 염려하시어 어질지 못한 내가 同母弟이며 開國과 定社 때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 하여, 儲副를 삼아서 監撫의 권한을 위임하시어 夙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갑자기 상왕께서 神器를 전하여 주시어 사양하여도 명령을 얻지 못하여 이에 왕위에 올랐나이다! 생각건대 어질지 못한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실로 宗親과 勳臣 및 忠義한

后土·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惟我祖宗 積德百年 我上王聖德神功 應天順人 而我二三兄弟 實左右之 奄有邦國 不期奸臣鄭道傳·閻等 欲固其寵 利其立幼 奪嫡亂倫 潛懷禍心 圖我兄弟 變將不測 幸賴天地·祖宗之佑 罪人黜伏 猥以嫡長 敬蒙上王之命 贊承大統 懼不克負荷 夙夜惟勸 罔知攸濟 顯惟宗親·大小臣僚 當奸黨煽亂之際 乃能奮義決策 撥亂反正 登茲有成 宗社載安 厥功之大 帶礪難忘 爰命有司 量宜旌賞 卜茲吉辰 祀于明神 用結盟好 予與同盟之臣 一體同心 雖有讒間 勿以爲疑 雖或有罪 永世有之 世世子孫 毋忘今日 惟爾同盟之臣 益礪乃心 夾輔王室 以永洪祚 與國咸休 或有嫌疑 當相面諭 或有忿恨 當相理遣 各盡其誠 毋敢面悅背憎以相傾危 惟當過失相規 患難相救 德業相勸 夷險一致 終始無變 苟渝此盟神必殛之 殃及子孫 各敬爾身 毋敢或忽.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고 翊戴佐命한 힘에 힘입은 바이니, 그 큰 공(丕績)을 아름답게 여기어 영원토록 잊기 어려울 것이나이다! 이에 有司에 명하여 賞典을 거행하고 吉辰을 가려서 밝은 신령께 제사하여 盟好를 맺나이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길이 한 마음으로 至誠으로 서로 도와 患難을 구제하고 過失을 바로잡아 始終 一義로써 함께 罔基(丕基)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만일 혹시라도 이익을 피하여 害를 피하고 私를 꾀쳐 公을 배반하며 盟好를 犯하고 欺罔變詐하여 陰謀讒害하면 神明께서 반드시 죽이어 殃禍가 자손만대에 미칠 것이며, 社稷을 犯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할 것이니 내가 감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自取인 것이나이다! 각각 맹세한 말(誓言)을 공경하여 영원히 이 정성을 지킬지라!”²⁵⁾는 것이었다. 이날 임금이 드디어 成均館에 이르러 文廟에 參謁하고 功臣宴을 베푼 자리에서 공신들이 어찌 盟書를 두루 외울 수 있겠는가! 걱정하며 功臣都監에 명하여 金瞻 등을 시켜 傳寫하게 하여 모두 나누어 주게 하였던²⁶⁾ 것이다.

그 후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는 大清觀 북쪽에서 三功臣이 회맹한

25)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元年 2月 辛丑條.

上如馬巖壇下 與佐命功臣 敵血同盟 用祭服 其載書曰 維建文三年歲次辛巳二月朔庚午十二日辛丑 朝鮮國王李芳遠 謹率勳臣義安大君和 · 上黨君李佇 · 完山君天祐 · 門下左政丞李居易 · 右政丞河崙 · 判三軍府事李茂等 敢昭告于皇上帝 · 宗廟社稷 · 山川百神之靈 伏以周制有盟載之法 漢興有帶礪之誓 所以要質神明而固忠信也 惟我太上王 以神武之德 應運開國 以建無疆之業 不幸權奸 貪寵挾幼 惹我兄弟 變在不測 尙賴上天誘衷 親勳協力 克底平定 以嫡以長 挾我上王 受命繼統 天倫以敘 宗社以定 不圖又有狡猾 懷姦構逆 謀我骨肉 稱兵向闕 禍在呼吸之間 又緣親勳 奮忠效力 施即討平 上王乃慮國本未定 人心易搖 謂予不愆 爲同母弟 且於開國 · 定社之際 又有微効 命爲儲副 委以監撫之權 夙夜兢惕 尙懼不堪 遂承上王傳付神器 辭不護命 乃卽于位 載念不愆 得至今日 實惟親勳 · 忠義之臣 協力靖亂 翊戴佐命之力是賴 嘉乃丕績 永世難忘 爰命有司 舉行賞典 茲卜吉辰 祀于明神 用結盟好 既盟之後 永肩一心 至誠相與 患難相救 過失相規 終始一義 共保丕基 子孫萬世 無忘今日 苟或規利避害 挾私背公 干盟犯好 欺罔變詐 陰謀讒害 神明必殛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非予敢違 惟其自取 各欽誓言 永克時忱 上遂至成均館 謁文廟.

26)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元年 2月 辛丑條.

…上遂至成均館 謁文廟 · 宴功臣 · 上曰. 功臣焉能遍誦盟誓乎 命功臣都監 使金瞻等傳寫 悉頒之.

바²⁷⁾ 있었고 5년(1405) 8월 28일(신묘)에는 임금이 開國·定社·佐命功臣의 盟簇에 친히 署押²⁸⁾하고 이튿날인 29일(임진)에 이들 삼공신이 회맹한 바²⁹⁾ 있었다. 또한 태종 11년(1411) 11월 3일(경신)에는 景福宮에서 原從功臣들이 회맹³⁰⁾하였으며, 17년(1417) 4월 11일(정묘)에는 공신들의 적장자들이 敬福宮 北洞에 모여 회맹한 바³¹⁾도 있었다.

4. 「同盟錄」

일반적으로 會盟을 同盟이라고도 하며 「同盟錄」을 「會盟錄」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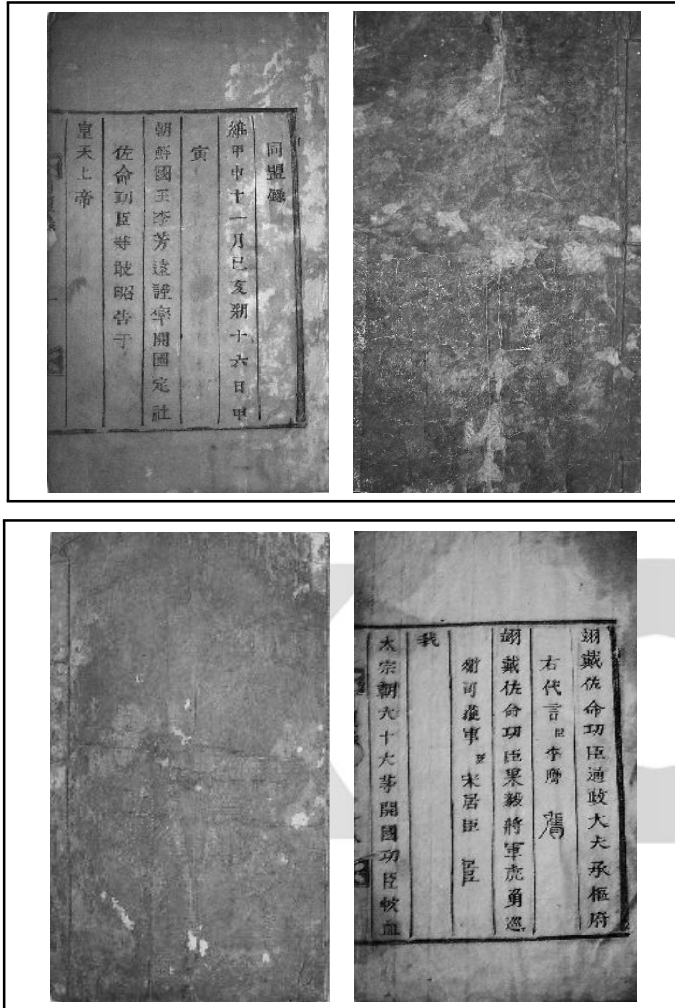
본 「同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開國功臣과 定社功臣 및 佐命功臣 등 이른바 조선초기의 三功臣들이 大清觀 북쪽에서 함께 회맹한 기록이다. 이날 임금은 「同盟錄」에 署押은 하였으나 그 자리에 親臨하지는 않았던 것³²⁾으로 기록되어 있다.

4.1 「同盟錄」의 形態事項

본 「同盟錄」³³⁾의 서지사항과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다.

- 27)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4年 11月 甲寅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其文曰 ….
- 28)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5年 8月 辛卯條. 親押開國·定社·佐命功臣盟簇.
- 29)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5年 8月 壬辰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咸會議政府 簽名于盟簇 賜酒.
- 30)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11年 11月 庚申條. 元從功臣等 會盟于景福宮北….
- 31)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17年 4月 丁卯條. 功臣嫡長 會盟于景福宮北洞.
- 32)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4年 11月 甲寅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其文曰 ….
- 33) 본 「同盟錄」은 廣濟寺의 釋 遠行이 소장하고 있다.

同盟錄 / 功臣都監 編. - 木活字本. - [漢城]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 四周單邊 半郭 20.5 × 15.3 cm, 有界, 6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5 × 18.9 cm. 楮紙. 線裝. 紺色表紙.
表題 · 卷首題 · 卷末題 · 版心題 : 同盟錄



<寫眞 1> 「同盟錄」의 形態

4.2 「同盟錄」의 內容

본 「同盟錄」은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大清觀 북쪽에서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 등 三功臣이 함께 盟誓한 기록³⁴⁾이다.

태종은 일찍이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의 三功臣이 함께 모여 맹세하지 아니하여 三功臣이 능히 協和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이때에 함께 모여서 맹세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회맹에는 監司와 邊鎮·州·牧의 지방관(分憂者)까지도 모두 와서 참여³⁵⁾하였던 중대한 행사였던 것이다.

본 「同盟錄」에 수록된 동맹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歲 갑신년(1404) 11월(기해) 16일(갑인)에 朝鮮國王 臣 李芳遠은 삼가 開國·定社·佐命功臣 등을 거느리고 감히 皇天의 上帝·宗廟·社稷과 山川의 百神의 神靈께 밝게 告하나이다! 앞드려 생각건대 나라에 君臣과 朋友가 있는 것은 가정에서 부자와 형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충성·신의·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 길이 終始를 보존해야 하는 바, 하물며 鬼神에게 要節하고 飢를 마시고 同盟하는 인사들이겠나이까! 생각건대, 우리 太上王은 神武한 자질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었으며, 小子도 좌우에서 輔弼하여 큰 基業을 이루었나이이다! 開國 初에 먼저 勳臣과 더불어 同盟하여 忠성과 신의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權奸이 私心을 품고 맹세를 저버리고 朋黨을 만들고 幼穉을 끼고 嫡統을 빼앗아 우리 형제를 해치기를 圖謀하여 장차 우리 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나이이다!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陰德의 도움으로 忠성스럽고 어진이가 義로 奮發하자 凶徒도 스스로 潰滅되었나이이다! 嫡長子로서 上王을 扶腋하여 擁立하니 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나이이다! 또한 勳臣과 더불어 같이 盟好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간사한 이가 다시금 그 맹세를 저버리고

34)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4年 11月 甲寅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其文曰 ….

35)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4年 11月 甲寅條.

…開國·定社·佐命三功臣 未嘗同盟 上慮三功臣 未能和協 會而同盟 以一其心 監司·邊鎮州牧憂者 皆來與焉.

變端을 엮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勳親과 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平定하여 罪人은 곧 잡아 이미 죄를 복죄하였나이다! 이것은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나이가! 小子가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또한 佐命한 신하와 더불어 同盟하여 피를 마시고 더불어 保命할 것을 기약한지 벌써 여러 해이나이다! 이때부터 三盟의 신하가 마음을 합하여 저를 보필하여 이에 지금까지 평안할 뿐 아니라 慶弔가 서로 더불어 赴集하였으니, 화합에 틈이 없었다고 할 만할 것이나이다! 일찍이 前後로 동맹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未安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吉日을 가려서 이에 三盟의 신하를 모아 上下의 神祇께 밝게 告하고 다시금 前의 맹세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하나이다! 지금부터 이미 맹세한 후에는 각각 스스로 勉勵하여 異體同心하며, 충성으로 서로 믿고 恩愛로 서로 좋아하며, 친애를 骨肉같이 하며, 굳건하기를 金石같이 할 것이나이다! 정성과 충성을 다하여 王室을 夾輔하며, 그 私憾을 잊고 오로지 公道에 따르며, 항상 社稷의 평안과 국가가 이로워지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협력하여 終始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福祿을 누리면서 함께 안전과 영화를 보존하여 世世子孫이 결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나이다! 진실로 私情을 품고 간사한 마음을 끼거나, 맹세를 어기고 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의심하여 두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讒言을 꾸며 變端을 만들거나, 朋黨을 나누어 結黨하거나, 나라의 傾覆을 꾀하거나, 동맹한 이를 誣陷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천지를 속이고 귀신을 업신여기며 君父를 배신하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神誅酒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王法이 있어 죄가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災殃이 자손에까지 미칠 것이나이다! 社稷에 관계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法으로 논하며 또한 전의 맹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리니, 이는 모두 自取하는 것일 뿐 그 누구의 허물이겠나이가! 天地神明께서 위에 밝게 布列하여 있으시니, 각기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영원히 힘쓰고 소홀하지 말지라! 삼가 清酌과 大牢를 법식대로 陳設하고 明薦하여 欽尙하오니 歆饗하소서!”라는 내용³⁶⁾이었다.

36) 太宗 著, 功臣都監 編, 同盟錄.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이날 三功臣 66인이 맹세를 끝내고 詣闕하자 태종은 각각 表裏를 하사하고 無逸殿에 나아가 큰 宴會를 베풀어 이들을 위로³⁷⁾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날의 회맹에 동참한 공신들의 名單·封號·功臣等級과 手決與否 등을 <표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同盟錄」에 수록된 會盟參與功臣의 諸般記錄

番號	功臣名	封號	開國	定社	佐命	手決	備考
01	李 和	義安大君	1	1	2	-	
02	李 良祐	永安君	-	2	-	手決	
03	李 福根	奉寧君	-	2	-	手決	
04	李 淑	完川君	-	-	3	手決	
05	金 士衡	上洛府院君	1	1	-	-	
06	河 崙	晉山府院君	-	1	1	手決	
07	成 石磷	昌寧府院君	-	-	3	手決	成石磷
08	趙 浚	平壤府院君	1	1	-	-	
09	李 舒	安平府院君	3	-	-	手決	
10	趙 英茂	漢山府院君	3	1	1	手決	
11	李 茂	牙山府院君	-	1	1	手決	
12	沈 淙	青原君	-	2	-	手決	沈淙
13	吳 思忠	寧城君	3	-	-	-	
14	李 天祐	完山君	-	2	2	手決	
15	趙 溫	漢川君	2	2	4	-	
16	李 南稷	星山君	3	-	4	手決	
17	趙 在宜	宜寧君	1	-	-	手決	
18	趙 璞	平原君	1	1	4	-	
19	權 近	吉昌君	-	-	4	手決	
20	李 叔蕃	安城君	-	2	1	手決	
21	張 思吉	花山君	1	2	-	手決	
22	金 輅	延城君	3	2	-	-	
23	柳 亮	文城君	-	-	4	手決	
24	孫 興宗	杆城君	3	-	-	-	
25	尹 抵	漆城君	-	-	3	手決	尹抵
26	金 永烈	義城君	-	-	3	-	金英烈
27	辛 克禮	鷲山君	-	2	1	-	

廣濟寺 所藏本 參看.

37)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宗 4年 11月 甲寅條.

…三公信六十六人 盟訖詣闕 各賜表裏 御無逸殿 設大宴以慰之.

「同盟錄」에 관한 研究

28	鄭 權	淸城君	1	2	-	-	鄭擢
29	鄭 龍	長城君	2	-	-	手決	
30	柳 倣	玉川君	2	-	-	手決	柳敬
31	趙 狷	平城君	2	-	-	手決	
32	金 永	蓮城君	-	-	4	手決	金鼎卿
33	閔 無	駟江君	-	2	1	手決	
34	閔 無	驪城君	-	2	1	手決	
35	洪 吉	南陽君	2	-	-	-	
36	安 景	興寧君	3	-	-	-	安景恭
37	韓 尙	西川君	3	-	-	手決	
38	李 來	雞城君	-	-	2	手決	
39	黃 尙	義原君	3	-	3	手決	黃居正
40	金 承	麗山君	-	-	4	-	金承霍
41	張 思	花城君	3	2	-	-	
42	徐 益	麻城君	-	-	4	-	
43	尹 坤	坡平君	-	-	3	-	
44	洪 恕	陽城君	-	-	4	手決	
45	李 敷	興城君	3	-	-	手決	
46	閔 汝	翼驪川君	3	-	-	-	
47	尹 子	當漆原君	-	-	4	手決	
48	馬 天	牧會寧君	-	-	3	手決	
49	沈 龜	齡豐川君	-	-	4	手決	
50	徐 愈	利城君	-	-	4	-	
51	李 原	鐵城君	-	-	4	-	
52	朴 嘗	潘城君	-	-	3	-	
53	柳 沆	瑞寧君	-	-	3	手決	柳沂
54	趙 涓	漢平君	-	-	4	手決	趙卿
55	咸 傅	霖東原君	3	-	-	-	
56	韓 珪	汚城君	-	-	4	手決	
57	李 從	茂通原君	-	-	4	手決	
58	延 嗣	宗谷城君	-	-	4	手決	
59	金 宇	熙照川君	-	-	4	-	
60	趙 希	閔平壤君	-	-	3	-	
61	尹 穆	平原君	-	-	4	-	
62	文 彬	命命	-	-	4	手決	
63	朴 錫	命命	-	-	3	手決	
64	李 升	商商	-	-	4	手決	
65	李 膺	膺膺	-	-	4	手決	
66	宋 居	臣臣	-	-	4	手決	宋居信

「同盟錄」에 수록된 三功臣會盟에 참여한 功臣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합 66명이다. 이들 중에는 복수의 功臣으로 책훈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同盟錄」에 수록된 三功臣會盟에 참여한 功臣들의 참여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三功臣會盟의 參與率

	開國功臣			定社功臣			佐命功臣			備考
	功臣數	參與數	比率(%)	功臣數	參與數	比率(%)	功臣數	參與數	比率(%)	
1等	17	7	41.17	12	7	58.33	9	7	77.77	
2等	13	5	38.46	17	13	76.47	3	3	100	
3等	22	13	59.09	-	-	-	12	11	91.66	
4等	-	-	-	-	-	-	23	23	100	
	52	25		29	20		53	44		

三功臣會盟에 참여한 功臣들을 개개의 공신으로 취급하여 참여수를 환산하면 개국공신 25인, 정사공신 20인, 좌명공신 44인 등 무려 89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結論

이상에서 조선초기의 공신과 태종조의 「同盟錄」에 관하여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개국공신은 태조 李成桂가 開京의 壽昌宮에서 즉위를 하면서 자신을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공이 많은 52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勳號이고 정사공신은 정종 즉위년(1398)에 일어난 이른바 芳碩의 난을 평정하고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이 많은 29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이며 좌명공신은 태종 원년(1401)에 회안 대군과 朴苞의 亂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에 공이 많은 53인의 인사들에게 내린 훈명이다.

(2) 功臣會盟은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들(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며, 會盟文은 이러한 회맹에서 맹서한

記錄文 이다.

(3) 조선초기부터 공신들이 會盟한 횟수는 적지 않았는데 태조 원년(1392) 9월 28일(병오)에 開國功臣들이, 정종 즉위년(태조 7, 1398) 10월 9일(신해)에는 定社功臣들이, 태종 원년(1401) 2월 12일(신축)에 佐命功臣들이 각각 敵血同盟하고 동맹문을 남겼다. 또한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는 이들 三功臣이 회맹한 바 있었고 태종 5년(1405) 8월 29일(임진)에도 삼공신이 회맹한 바 있었다.

(4) 「同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開國·定社·佐命 등 이른바 조선 초기 3공신 66인이 大清觀 북쪽에서 함께 회맹하고 맹誓한 내용을 수록한 1책의 목활자본이다.

<참고문헌>

功臣都監 編, 「同盟錄」.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廣濟寺 所藏本.

功臣都監 編, 「太宗大王率功臣六十六人會盟錄」. 木版本. [漢城]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古2513-222).

趙錫元 編, 「太宗朝三勳臣會盟錄」. 石版本. [漢城] : [刊寫者未詳], [1934]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古2513-197).

功臣都監 編, 「太宗大王會盟錄」.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藏書閣 所藏本 (B9E 3A).

功臣都監 編, 「會盟錄」. 木活字本. [漢城]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藏書閣 所藏本. (B9E 6).

功臣都監 編, 「太宗朝會盟錄」. 木活字本. [漢城] : [刊寫者未詳], [1900 경]. 藏書閣 所藏本. (K2-639).

金鎬永 著, 趙鍾根 等編, 「太宗朝三勳臣會盟錄」. 石版本. 光州 : 永林堂石版印刷所, 1934.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한고5-내0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к с і